

정책논단

고령친화산업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제주의 향후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고 승 한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발전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들은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 중앙정부의 정책, 고령친화산업 관련 제주지역의 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제주의 고령친화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J E J U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1. 들어가면서

서구 선진국들이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에 직면해 오고 있다. 2050년 경에는 일부 개발도상국(특히 중국)들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전 세계가 고령화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사회 물결이 밀려 오면서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들이 파급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전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만들어졌고, 동시에 지방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플랜」이 수립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

고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있을 때 보다 그 위상이 낮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하여 고령사회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존 산업구조에 획기적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주체, 노동시장, 인적자원의 공급과 수요, 경제성장, 투자와 소비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구조의 재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정권의 변화 속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도 엿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 중앙정부의 정책, 고령친화산업 관련 제주지역의 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제주의 고령친화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고령친화산업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특성

1) 고령친화산업의 개념적 접근

고령친화산업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 “고령친화산업”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이 2005년 2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에 관한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란 말이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사용되어 와서 “실버산업”이란 용어에 더 익숙해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실버산업에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용된 실버산업이란 개념이 그대로 한국에서 사용되어 온 경향을 부인할 수 없다.

2005년 2월 이후 고령친화라는 개념은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취지로 편리성과 안정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와 산업이라는 합

성 용어로 기존의 실버산업을 대체하는 용어로 고령친화산업을 사용하게 되었다 (김혜정 외, 2010: 3-4; 고승한 외, 2007: 16-17).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2005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노인(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민간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건강·편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의는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미래 노년층(현재의 중장년층) 혹은 현재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투자·생산·소비 영역을 담당하는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서 현재와 미래 노인들의 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 충족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산업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

오늘날 고령친화산업은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전 잠재력이 높고, 그리고 국가 혹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이 현재 시점에서 경제적 혹은 정책적으로 주목받고, 또한 육성·발전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김혜정 외, 2010: 5-17; 고승한 외, 2007).

첫째, 세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2005년 7.4%에서 2050년에 16.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2050년에 전체 인구의 1/4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에는 일본처럼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에 9.9명에서 2020년 4.7명, 그리고 2050년에 1.5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가 세계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친화산업은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하게 되는 산업적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이 급격히 태동하게 된 주요한 사회문화적 요인들 가운데 가족구조와 부양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통적 가족구조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전통적 가족주의, 경로문화, 가족부양 태도와 가치관 등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따라서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부양체제가 국가나 지역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생산을 고령친화산업 부문이 맡게 되었다.

셋째,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으로 변화하여 소비성향도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젊은 세대와 베이비부버 세대들은 노후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연금에 가입하고 또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투자와 소비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가진 고령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시장(주택, 재테크, 교육, 여가, 건강·장수 등)도 급격히 생겨날 것이다.

넷째, 오늘날 노인들의 생활방식이 과거 노인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노인층은 주로 자녀에 의존하고, 근검·절약하며 노인답게 지내고 재산도 자녀에게 상속하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져 고집도 세며, 취미생활도 거의 없고, 소비생활을 잘 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앞으로 미래 노인층은 심신이 밝고 미래지향적 인생관을 가져 다양한 취미생활과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며, 재산도 자신을 위해서 처분하려고 하며,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층은 독립적이며 자아실현을 해 나가면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소비생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다섯째, 노인층 인구의 증가는 노화 혹은 사고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치료를 요하는 노인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노인들은 만성질환(예, 고혈압, 당뇨, 심장병, 치매, 중풍, 골다공증 등)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요보호 노인층 인구가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의 질병 예방 및 치료, 그리고 수발, 부양 및 요양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발전이 요구되고 동시에 변창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다양화되면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도 생겨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1993년 12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유료 양로시설, 유료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더욱 번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사업 발전이 바로 고령친화산업으로서 성격을 갖게 된다.

3)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특성

고령친화산업은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와 생산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시장 부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공공기관도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타 산업과도 크게 대별된다.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혜정 외, 2010: 17-19).

첫째, 고령친화산업은 민간시장에서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질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소비층의 복지에도 기여하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은 중소형 기업에 적합한 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고령자의 다양하고 세심한 서비스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규격화·표준화된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 전략으로는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 부문이다.

셋째, 고령자층은 건강한 노인에서부터 요양보호사가 필요로 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비 대상자가 다양하다. 그래서 고령친화산업 가운데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산업이나 요양산업 분야에서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돌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노인층은 특정 국가나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족들과 가능한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개별 노인보다는 가족 성원들의 수요 충족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의 노인문화가 갖는 특성들을 감안하여 서비스 혹은 상품들도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하려면 노인층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 가족문화 그리고 지역문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고객인 고령층 노인들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주 바꾸려는 경향이 낮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은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면 새로운 상품 시장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 확보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노인층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 혹은 도시근교 지역에 적합하다.

4) 고령친화산업의 유형과 시장 전망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유형은 아직까지 통일된 분류체계를 확실히 갖추고 있지 않지만 참여정부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2, 2006. 2)가 1, 2차에 걸쳐 분류한 유형은 모두 14개 부문에 34개 품목으로 구분되고 있다(표1·참고).

〈표1〉 고령친화산업 14대 부문 34개 전략품목

부 문		34개 전략 품목
1차: 8대산업 (19개 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원격진단/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및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연금
	주택산업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농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2차: 6대산업 (15개 품목)	교통산업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산업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산업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장묘산업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서비스
	의류산업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 이너웨어
	교육산업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자료 : 1)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2) 「고령화산업 활성화 전략」

2)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매출액 기준)는 2002년에 12.8조원(명목 GDP 대비 1.9% 수준), 2010년에 43.9조원 그리고 2020년에

는 148.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4.58%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3. 중앙정부 고령친화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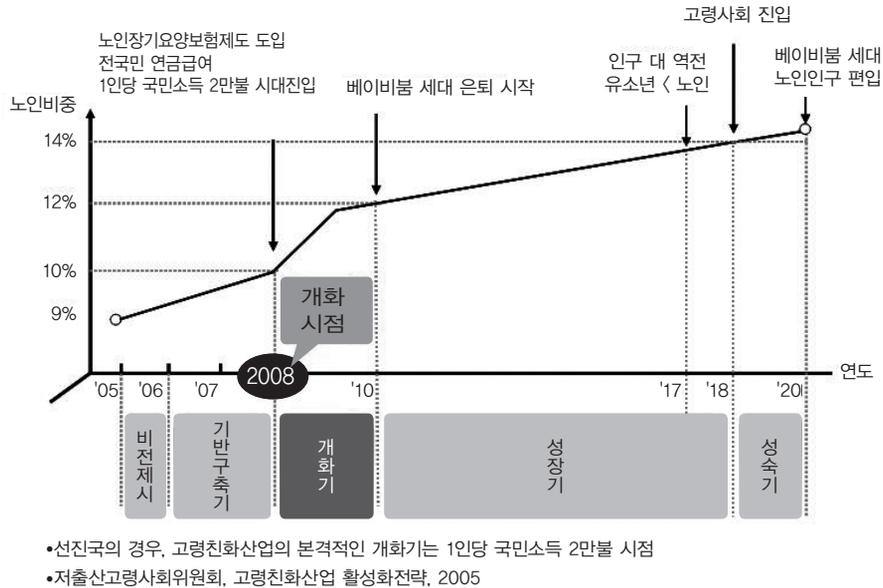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대한 정책 구상과 방향 설정은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제출한 “고령화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2005. 2)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II)” 보고서(2006. 2)에서 제시되었다. 그 이후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발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6년 12월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 구성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기본 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기반조성, 품질향상, 자원 확보 및 배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립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에 제시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에 근거하여 정책적 지원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이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사업(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확대·신규),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사업(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평가,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발굴,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개선),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 등 향노화산업 육성,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등을 추진해 오고 있고, 혹은 향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 발전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그림1·참고).

〈그림1〉 고령친화산업 발전 로드맵



4. 제주지역의 고령친화산업 여건

제주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 측면에서 천착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57만6천여명이고 그 가운데 노인인구는 7만2천5백여명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는 2015년에 고령사회,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타 시·도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표2·참고).

특히 제주의 85세 이상 노인의 장수도 비율은 전국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하여 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장수 노인 비율이 15.0명을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표 2〉 전국 및 제주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전국	3.1	3.8	5.1	7.2	9.1	11	12.9	15.6	19.9	24.3
제주	5.2	5.1	6	8.2	10.3	12.3	14.3	16.4	20.1	24.6

자료: 통계청 (2007)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제주도는 청정 1차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이 주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에서 분류된 고령친화산업 유형과 관련해 볼 때 제주지역에는 농업 부문이 노인들을 위한 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에도 제주지역의 노인 경제활동참여율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거의 20%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주노인들은 65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경제적 독립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동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업은 제주에서 고령친화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잠재력을 갖고 있다.

농업생산 분야와 관련하여 식품산업도 제주에서는 고령친화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2차 가공하여 웰빙시대에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 고령자 대상으로 소비·판매할 수 있는 시장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는 1,800여종의 식생물이 자라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한방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IT, BT, 향장품 등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능성 약제 혹은 약품을 생산·판매하는 한방산업도 고령친화산업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제주는 국내외에서 관광휴양도시로 각광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과 고령자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써 관광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5.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 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5년 이후부터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획기적 성과를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제

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발전과 관련된 기본계획도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제주형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계획 안에는 제주지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여야 하고, 또한 제주의 여건분석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 품목 선정과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 단계 제주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자치도내 고령친화산업 진흥을 담당할 부서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진흥지원 조례 제정에 의한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셋째, 제주형 고령친화산업을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형 고령친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분야와 품목 선정에 따른 전문 인적자원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넷째, (가칭)제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은 제주지역에서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핵심 전략산업과 산업부문별 사업들과 고령친화산업과의 연계 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끝으로, 제주의 고령친화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회경제적 관심과 정책적 추진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공론의 장과 홍보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도민 및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JDI**

참고문헌

- 고승한 외,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주지역의 연구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7.
- 고승한·현인숙, 「제주지역의 백세인 생활실태 조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7.
- 김혜정·박용역 외, 「고령친화산업론」 서울: 계축문화사, 2010.

-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화산업 활성화 전략」 2005. 2.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2006. 2.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발굴 육성 기획」 2008. 12.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2007.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2010. 11.